

“제가 출연자 편안하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거침없는 화법으로 임하지만 때론 내게 이런 면이…놀라 다양한 사람 만나 나도 성숙 남은 목표는 ‘월드와이드 쇼’ BTS·블랙핑크 초대하고 싶어”

“나답게 하는 건, 나 빼고 아무도 못 해!”

가수 제시(호현주·33)가 1년째 진행 해온 SBS모비딕 ‘제시의 쇼!터뷰’(쇼터뷰) 녹화 때마다 자신에게 거는 ‘주문’이다. 어눌한 우리말과 ‘센 언니’ 이미지로 인해 토크쇼 진행자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서다. 주눅 들지 않으려고 “내 이름을 내건 만큼 모든 걸 걸자”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제시는 방송가 안팎의 예상을 깨고 ‘예능 아이콘’으로 우뚝 섰다. tvN ‘식스센스’ 고정부터 KBS 2TV ‘대화의 화열’ 등 인기프로그램의 게스트까지 출연 방식과 활동 영역도 다양하다.

중심은 역시 ‘쇼터뷰’다. 지난해 6월4일 배우 김영철을 시작으로 유재석·이재훈·다이나믹 듀오·강다니엘 등 스타들을 잇달아 만나면서 진행 실력을 인정받았다. 지난달 27일에는 할리우드 스타 엠마 스톤까지 화상으로 만나면서 해외로까지 발을 넓혔다.

제시는 7일 방송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시작할 때만 해도 (게스트)섭외조차 어려웠는데, 이제는 할리우드 스타를 만나다니 뿌듯하다”면서 “3~4개월 정도 밖에 못 갈 줄 알았던 자리를 1년이나 지키고 나니 더욱 욕심이 생긴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일단 1년 동안 달려왔으니 1년 더 가자는 마음이 커요. 새로운 콘텐츠로 매주 조금씩 철들어가는 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직 못 만난 스타들도 정말 많아요.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꼭 초대하고 싶어요. 함께 활동한 환불원정대(엄정화·이효리·마마무 화사) 멤버들도요. (이)효리 언니가 제주에 사니까 이 참에 제주 특집 한 번 할까? 하하하!”

제시가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자신과 하는 또 하나의 약속이 있다. “나답게, 거침없이, 다만 선을 지키면서” 임하는 것이다. “뻔한 답, 없는 얘기는 절대 안 한다”는 직설화법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비결이기도 하다.

“제가 ‘센 이미지’인 줄로만 아는데요, 사실은 쑥스러워하는 출연자들도 금세 편안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 스스로도 ‘내게 이런 면이 있었네?’라며 놀라곤 해요. 예능 활동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숙해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배려하는 마음도 많이 커졌죠.”

이제 남은 목표는 ‘월드와이드 쇼’이다. 영어에 능통한 덕분에 해외 스타들의 ‘리브콜’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만 아니었더라도 벌써 해외로 나갔을 텐데”라며 아쉬워하면서도 “구독자들의 ‘제시답게 재미있다’는 댓글에 힘을 얻는다”며 웃었다.

“고민 1순위는 늘 ‘행복’이에요. 전에는 오로지 성장에만 몰두했다면, 이제는 일과 사랑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방법을 배우가고 있어요. 하나 남은 목표를 꼽자면 얼른 남자친구가 생겨서 결혼하는 것! 언젠가 ‘폭’하고 사랑이 찾아올 거라 믿어요. 빨리 결혼해 멋진 엄마가 되는 게 꿈이랍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내 출연프로그램 중 단연 1순위” 가수 제시가 7일 SBS모비딕 토크쇼 ‘제시의 쇼!터뷰’ 방송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SBS



빈 디젤 vs 제이슨 스타템

2019년 ‘분노의 질주’ 이후 불화 빈 디젤 ‘더 얼티메이트’ 흥행에 스타템 ‘케시트릭’ 9일 개봉 빅뱅

‘분노의 질주:더 얼티메이트’의 빈 디젤이 한국에서 올해 최고 흥행 성과를 노리는 가운데 한동안 이 시리즈 영화를 함께 이끌어온 제이슨 스타템과 정면충돌한다. 제이슨 스타템이 2019년 ‘분노의 질주:홉스&쇼’를 끝으로 시리즈에서 하차한 뒤 신작 ‘케시트릭’을 선보이면서 두 사람의 흥행 진검승부가 펼쳐진다.

빈 디젤과 제이슨 스타템은 1967년 동갑내기로, ‘분노의 질주’를 비롯한 다양한 액션영화의 주연으로 활약해왔다. 이들은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여섯 번째 작품인 2013년 ‘더 맥시멈’부터 ‘더 세븐’, ‘더 익스트림’, ‘홉스&쇼’까지 6년 동안 호흡을 맞추며 흥행 성과를 일궈다. 특히 2017년 ‘더 익스트림’과 2019년 ‘홉스&쇼’가 국내에서도 300만여 관객을 불러 모으는 등 적지 않은 팬덤을 구축했다.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은 시리즈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불화를 겪으며 헤어졌다. 결국 빈 디젤이 선두에 서서 ‘더 얼티메이트’를 이끌며 한창 흥행 중이다.

대신 제이슨 스타템은 9일 ‘케시트릭’으로 관객을 만난다. 제이슨 스타템은 조시 하트넷, 제프리 도노반 등과 호흡을 맞춰 ‘록 스타 앤 투 스모킹 바렐즈’, ‘스내치’, ‘셜록 홉즈’ 시리즈와 ‘젠틀



빈 디젤(위)·제이슨 스타템

맨’ 등으로 낮익은 가이 리치 감독과 손을 잡았다.

제이슨 스타템은 이처럼 화려한 라인업과, 아들을 앓아간 무장 강도를 향한 아버지의 ‘분노의 응징’ 액션 이야기로 기대를 모은다. 기대감을 반영하듯 ‘케시트릭’은 7일 오후 현재 40%가 넘는 실시간 예매율(이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신작인 ‘더 얼티메이트’와 흥행 맞대결이 관객의 시선을 끌 전망이다.

한편 ‘더 얼티메이트’는 7일까지 누적 209만명에 육박하는 관객몰이로 이날 현재 올해 최고 흥행작인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열차편’(209만명)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그룹 ‘엑소’

‘군백기’ 엑소, 놀라운 ‘스타파워’

(군·軍+공백기)

새 앨범 ‘돈트 파이트 더 필링’ 선주문량만 122만장 돌파 기염 율트, 솔로 활동으로 ‘메가 히트’

‘군백기’에도 끄떡없다.

아이돌 그룹 엑소가 또 한 번 ‘밀리언셀러’에 도전하며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아홉 멤버 가운데 수호, 첸, 찬열, 백현이 군 복무로 그룹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견뎌왔을 과시한 셈이다.

엑소가 7일 발표한 스페셜 앨범 ‘돈트 파이트 더 필링’(DON’T FIGHT THE FEELING)이 전날까지 선 주문량 122만181장을 기록했다. 이는 이들이 지금까지 선보인 앨범 가운데 최대 규모여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엑소는 강력한 팬덤의 힘으로 앨범 선 주문량을 실제 판매로 이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앨범까지 모두 6장을 100만장 판매고에 올려놓을 전망이다.

‘돈트 파이트 더 필링’은 2019년 11월 내놓은 정규 6집 ‘옵세션’(OBSESSION) 이후 1년 6개월 만의 새 앨범이다. 일부 멤버들의 군 복무로 인한 일명 ‘군백기’ 속에서 오랜만에 새 앨범을 내놓아 팬들의 더욱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찬열과 백현 등 최근 입대한 멤버를 비롯해 시우민, 레이, 디오, 카이, 세훈 등이 힘을 모아 5곡을 틈틈이 작업해 담은 앨범이라는 점도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입대한 첸과 수호는 참여하지 못했다. 앨범 동명의 타이틀곡은 신시사이저와 베이스 사운드가 돋보이는 경쾌한 댄스곡으로, 선택의 순간에 자신을 믿고 자유롭게 질주하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엑소는 앨범 활동은 하지 않지만, 발매 기념으로 15일 온라인 VR(가상현실) 전시관 해 담은 앨범이라는 점도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입대한 첸과 수호는 참여하지 못했다. 앨범 동명의 타이틀곡은 신시사이저와 베이스 사운드가 돋보이는 경쾌한 댄스곡으로, 선택의 순간에 자신을 믿고 자유롭게 질주하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정경 기자 annjoy@donga.com

연예

스포츠동아 2021년 6월 8일 화요일 11

연예뉴스 HOT 5

양현석,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혐의 기소



양현석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YG) 대표 프로듀서가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투약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해회사 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달 28일 양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9년 공익제보자 한모 씨가 비아이의 2016년 마약 구매 및 일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진술하자 그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다. 양 전 대표는 이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양 전 대표와 한씨 등을 소환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만하다고 봤다.

2PM, 새 앨범 내고 완전체로 컴백



그룹 ‘2PM’

그룹 2PM이 5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한다. 7일 JYP엔터테인먼트는 “2PM이 28일 새 앨범 ‘머스트’(MUST)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식 SNS로 다크·준호·준케이·택연·우영·찬성 등 여섯 멤버들이 등장하는 앨범 트레일러 영상도 공개했다. 이들이 완전체로 새 음반을 내는 것은 2016년 9월 정규 6집 ‘젠틀맨스 게임’ 이후 약 5년 만이다. 2PM은 2008년 데뷔해 ‘하트비트’ ‘10점 만점에 10점’ ‘우리집’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내놨다. 3월 준호가 멤버 중 마지막으로 전역하면서 태국 출신 다크를 제외한 5명 모두가 군 복무를 마쳤다.

‘오월의…’ 고민시, 5·18재단에 1000만원 기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KBS 2TV ‘오월의 청춘’ 주연 고민시가 5·18기념재단(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재단에 따르면 고민시는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달 17일 기념사업에 써 달라며 1000만원을 기탁했다. 고민시는 극중 1980년 광주 평화병원 응급실 간호사로써 가족과 연인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그렸다.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정성이 담긴 기부금을 진장 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평등과 나눔의 연대 활동에 쓰겠다”고 밝혔다.

배우 박정민, 운영난에 ‘책방’ 닫기로



박정민

배우 박정민이 서울 상수동에서 운영해온 책방의 문을 11일 닫는다. 7일 박정민은 책방 ‘책과 밤낮’의 공식 SNS를 통해 “그동안 책방 운영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 여러모로 해결책을 모색해보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아 아쉽게도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언젠가 다시 한번 더 번듯한 모양새로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박정민은 2019년 7월 지인과 함께 책방을 열어 운영해왔다. 또 에세이 ‘슬만한 인간’을 직접 쓰기도 했다.

롯데시네마, 7월부터 관람료 1000원 인상

멀티플렉스 극장 롯데시네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영화 관람료를 7월1일부터 인상한다. 7일 롯데시네마는 성인 2D 일반영화 기준 주중 1만3000원, 주말 1만4000원으로 관람료를 기존보다 1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과 고객 편의를 고려해 관람 시간대를 기존 3개(조조·일반·프라임)에서 2개(조조·일반)으로 개편하고, 조조 범위도 오전 10시 전에서 오후 12시 전으로 확대한다. 롯데시네마는 “영화산업의 정상화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